

## 2장. 어느 길이 진짜일까.

### 1. 가면을 쓴 신들

신화의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 놓는 것은 내면의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신화 속 신들은 그 길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힘들의 다른 이름이다. 그 세계 속에서 길가에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도 신성한 힘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신화적 우주 속에 거주자들은 우리 시대의 사물들처럼 그것의 유용성으로서의 의미 너머의 의미, 도구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강과 바다, 숲과 언덕, 산, 동굴이 성스러운 힘이 깃든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는 자연 속에 깃든 이 성스러운 힘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힘은 때로 그리스의 신들처럼 인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신들처럼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취하기도 하며 이슬람의 신처럼 문양이나 문자의 형상을 취하기도 한다. 제우스가 레다 앞에 백조로 나타났거나 에우로파 앞에 하얀 황소로 나타났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신의 현현(theophany, epiphany)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절터에 얽힌 관세음보살의 현신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일상의 사물과 사건이 신의 현현으로 느껴질 때, 세계는 성스러운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는 유동하며 살아 움직이며 인간의 예측과 판단 너머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 때 세계는 더 이상 무감하고 굳어있는 장소가 아니다. 처음으로 봄꽃이 피는 순간, 새싹이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또는 살아 숨쉬던 것들이 가을 낙엽처럼 힘을 잃고 푹푹 떨어져내려 저세상으로 가는 죽음의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은 성스러운 순간들이다. 시간 속 어떤 순간이 성스러운 힘이 현현하고 있는 순간으로 느껴질 때 삶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띠고 살아난다. 모든 것이 그 순간 살아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현현'의 순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적인 체험이어서 그것을 객관화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의 신비,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삶의 체험들은 예술가들의 창작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부족공동체로 하여금 제의를 거행하게 하고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러한 현현의 순간은 과거에는 주기적인 제의를 통해 일상의 삶 속에 통합되어 있었다. 지금은 지극히 형식화된 의례로만 남아있는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통과의례나 계절주기에 맞춘 습속들은 모두 이러한 성스러운 시간에 대한 체험을 일상 속에 재현하고 경험하는 일들이었다.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는 이러한 제의에서 떨어져나와 탈-성화된 채로 한낱 오락거리나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흘러다

나는 형편이 되었지만 신화가 지닌 진정한 힘은 신화적 삶을 살 때 나타난다. 말하자면 신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고 세상 속에서 되살아나 그 생생한 힘들을 펼쳐낼 때 비로소 신화가 의미를 띠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 비인간을 통틀어 전 우주 속에서 흘러다니는 신성한 힘의 이름이었던 신들을 우리 내면의 심리적 힘들의 이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정신분석학의 탄생 이후다. 특히 칼 구스타브 융에 의해 정초된 분석심리학은 신들을 심리적 원형(archetype)으로 이해했다. 과거의 우리 바깥에 승배의 대상이던 신들이 이제 우리 내면에서 움직이는 자연의 힘들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삶의 어느 대목에서 원형이 강렬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신들에게 사로잡힌다. 그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더 이상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다. 나를 넘어선 어떤 패턴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때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삶의 어떤 시기마다 우리를 지배하는 심리적 원형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마르스의 힘에 휩쓸려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제우스의 힘에 이끌려 지배 권력을 휘두르며 헤라의 힘에 이끌려 가정을 보호하려하며, 아프로디테의 힘에 이끌려 마르스의 힘을 무력화시키며, 헤파이스토스의 힘에 이끌려 이름난 장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는 축복의 말은 이런 다양한 힘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축원이기도 하다. 신이 현현하는 순간은 바로 이러한 힘들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신적인 힘들이 인간을 초월해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우리보다 이 힘들이 더욱 크고 강하며 우리의 의도에 의해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힘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감싸 안아 우리를 홀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다. 신적인 광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mania'는 이러한 홀림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신들림이다. 신들림은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적인 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신들림이 예언, 시, 사랑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림에 의해서만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천재는 신들린 자인 것이다. 천재를 뜻하는 genius는 날개달린 수호천사 genius에 의해 감싸인 자이다.

## 2. 문지방에 사는 신, 트릭스터

사는 내내 신화의 시간을 산다면 그는 신일 것이다. 신화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항상 겹쳐지지는 않는다. 일상의 시간이 인간적 질서, 사회적 규범체계, 상식적 의미체계의 울타리 안에서 경험된다면 신화적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다른 차원 속에서 경험된다. 개인이 일상 속에서 신화적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의 의식이 잠드는 꿈의 시간이다. 꿈의 시간은

밤에 꾸는 꿈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낮꿈의 시간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 우리는 낮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물론 이 때 이 시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몸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우리는 단지 관찰자, 구경꾼, 관객으로 자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일상적 시간이 제의적 시간과 교차되는 시간을 문지방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일종의 경계 지대인데 우리의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뜻한다. 그는 연극을 비롯한 예술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도 예술이 고대 제의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의는 에피파니를 집단적으로 형식의 안전망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일이다. 이 때 제의의 형식은 인간적 질서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신들림의 경험에 경계를 그어주는 역할을 한다. 꿈의 시간에 들어가는 일뿐 아니라 그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절차와 의식적 경건함은 바로 이러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꿈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지대의 힘을 표현하는 신을 일컬어 용은 '트릭스터(trickster)'라 불렀다. 트릭스터는 말 그대로 트릭을 쓰는 자를 말한다. 일종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의 이미지다. 로마의 문지방의 신인 야누스, 그리스의 헤르메스, 북미 인디언 신화의 코요테, 우리나라 민담의 도깨비 등이 모두 트릭스터들이다. 트릭스터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범체제로 포착되지 않는 힘이다. 그렇다고 아예 인간적 규범체계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트릭스터는 우리가 나눠놓은 이쪽저쪽의 경계를 마음대로 오가는 힘이다. 인간적 규범과 질서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듯하지만 어느덧 그것을 무시한다. 무시하는 듯하지만 아예 저편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니다.

북미 인디언 신화 속에서 트릭스터가 코요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는 여행 중에 재미삼아 산과 평원을 만들고 땅에 여기저기에 붉은 색을 칠하기도 한다. 재미삼아 여자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나는대로 여러 동물들과 관계하여 아이를 낳기도 한다. 그의 행동에 도무지 심각해 보이는 것은 없다. 그에겐 어떤 정해진 가치도 규율도 별로 의미가 없다.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내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나중에 내게 찾아올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며 때로는 우스워 보이기도 한다. 그의 행동에는 별로 악의가 없지만 그가 불러오는 결과는 엄청난 경우도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듯이 보인다. 매사가 정해진 규율과 질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트릭스터는 짜증나는 존재다. 실제로 트릭스터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그 종잡을 수 없음으로 인해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규율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그의 행동이 영웅적 위반인 것은 아니다. 영웅적 위반은 기존의 규율을 위반하기는 하지만 그가 따르는 다른 규율에 충실하므로 그의 위반은 충분한 명분과 합리적 근거를 지닌다. 그리고 그의 위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기존 규율의 제어력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그는 다른 규율을 정초하는 자로 떠받

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트릭스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는 모방 불가능하며 그의 위반이 특별한 목적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위반의 성공에 목매지도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그뿐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위대해보이지도 진지하지도 심각하지도 않으며 하찮아보이기도 한다. 그의 그 하찮음과 가벼움은 힘의 대결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희생양으로 삼게 만들기도 한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바보인 것이다.

융은 트릭스터를 그림자 인격의 일종으로 보았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의 상을 형성하고 있다. 자신의 국적, 성별,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신의 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취향, 외모 등의 개인적인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구성된 자아상이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 사람이야'라는 자기만의 내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영역이 나를 구성한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취향과 가치관, 태도 등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융은 한 개인의 자아상 너머에 진정한 '자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개인성을 넘어서는 존재다. 그러나 한 개인의 내부에서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추동해 나가는 일종의 '진아'이기도 하다. 자아가 자아로 규정하기를 거부한 나머지 영역은 그림자로 남아있다. 그림자는 항상 삶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지만 그림자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에게 그림자는 자아가 아닌 타자에게 투영된다. 나의 뒷면이 너에게 투영되어 너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트릭스터는 그림자의 양면성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식별하기 위해 구별과 선택과 배제의 경계를 그어놓은 선을 트릭스터는 이리저리 오간다. 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의 바깥에는 부정적인 얼굴의 트릭스터가 얼굴을 내민다. 그래서 그를 악마라고 규정짓는 순간 그는 모습을 바꿔 천사의 얼굴로 찾아온다. 그는 로마의 출입구의 신 야누스와 같다. 이쪽과 저쪽 모두를 오간다. 그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면 이렇지 않기도 하고 저렇지 않기도 하다. 그는 때로 선한 얼굴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갑자기 가증스러운 악마로 변해 우리를 구렁텅이에 처 넣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트릭스터의 그 가혹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현재의 미적지근한 평화에서 벗어나 삶의 생생함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

트릭스터의 이러한 포착불가능성, 불분명하고 애매한 정체성을 과거 연금술사들은 수은에 투영했다. 수은을 연금술사들은 메르쿠리우스라 불렀는데 그것은 수은이 마치 흘러다니는 은처럼 보이면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쿠리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의 로마식 표현이다. 헤르메스, 메르쿠리우스는 날개달린 신발을 신고 손에는 마법지팡이인 카두세우스를 들고 모든 세계를 넘나든다. 하늘과 가까이 있는 제우스의 거처에서부터 지하의 하데스의 영토까지 그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카두세우스는 날개달린 두 마리의 뱀이 위를 향해 꼬여 올라

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뱀은 지하와 지상을 넘나드는 존재이면서 땅의 원지적인(chtonic) 에너지를 표상하는 동물이다. 한편 새는 땅의 끈끈하고 어두운 원지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자유로움을 구가하는 상징이다. 헤르메스의 카두세우스는 이 두 가지의 분리된 영토와 차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 카두세우스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엮고 빛과 어둠을 하나로 엮는다. 카두세우스를 지닌 그는 세상의 모든 문을 여는 자이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요정 마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태어나 걸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도둑질이다. 형이자 태양신인 아폴론의 소 떼를 훔쳐 불에 구워먹었다. 아폴론은 자신의 소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헤르메스를 의심하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헤르메스가 소의 발에 갈대들을 묶어 뒤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소의 발자국은 발에 묶인 갈대뱀자루 때문에 모두 없어져 버렸고 헤르메스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오히려 형이 죄도 없는 자기를 의심한다며 아버지 제우스에게 능청을 부렸다. 헤르메스는 소의 가죽과 뼈로 멋진 리라를 만들었고 화가 잔뜩 난 아폴론에게 그 악기를 선사한다. 아폴론은 헤르메스가 선사한 일곱줄 리라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고 소를 잃어버린 마음이 단숨에 풀려버렸다. 아버지 제우스는 헤르메스의 재능을 높이 사 이 악동을 자신의 메신저로 임명한다. 그는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날개달린 샌들을 신고 머리에는 하테스에게 선사받은 투명투구를 쓰고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는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가 나타나는 순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고 쉬워 보이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그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이면서 때로는 악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트릭스터를 우리 편이라고 쉽게 속단했다가는 트릭스터에게 뒷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를 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는 무엇에도 별로 악의가 없다. 그렇다고 선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바람에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듯 트릭스터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 그 바람의 방향과 의도에 우리가 상상하는 합리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곤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거대한 원인-결과 연쇄물이다. 과학은 그 인과의 그물망의 메커니즘을 이론화하고 싶어한다. 이론으로 변모한 세계상은 우리를 안심하게 한다. 마치 세계가 그 이론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환상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환상을 진짜로 믿고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 이론대로 움직이고 세계가 이론대로 움직이기만 하던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사회제도와 시스템은 바로 이론을 현실적 강제력을 지닌 세계로 전환시켜 놓은 결과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꿈쩍없이 그 그물망에 사로잡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일 뿐이다. 삶은 살아있는 것이며 인간의 손아귀로 다 포착하기에는 그 존재성이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롭다. 모든 제도는 이편과 저편을 가르지만 그 선을 넘나드는 자는 항상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선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고정시킬 수 없는 우리 내부의 자연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선을 자꾸만 넘나들며 결국

에는 그 선을 무너트려버린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더 큰 힘은 그 규율을 비웃는다. 나는 절대로 똥을 싸지 않겠다는 코요테의 다짐을 떠올려보자. 그는 결국 제가 싼 어마어마한 똥더미에 빠져 허우적댄다. 코요테의 중대결심을 형편없이 처박아버리는 것은 작은 알뿌리의 목소리다. 그는 자연의 작은 속삭임을 우습게 알았고 자신의 다짐따위로 그 작은 힘을 쉽게 무력화시킬수 있을 줄 알았다. 그는 그 결과 우스운 존재가 되어 버린다. 세상을 모두 자기 똥으로 뒤범벅을 해놓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된다. 그렇다고 트릭스터가 한심한 존재이기만 한 걸까? 그는 스스로의 몸을 여자로 변신시켜 아이를 만들기도 하고 산과 평원을 만들기도 하는 존재다. 세상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삶의 지혜를 전해주기도 한다. 어린 악동이자 늙은 마법사, 재치어린 광대이자 슬픈 바보, 왕이자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반대 인격을 한 몸에 지닌 그가 바로 트릭스터다. 당신 곁에 트릭스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

## \* 트릭스터 코요테 이야기

어느 날 코요테의 모습을 한 트릭스터가 들소 한 마리를 죽였다. 그의 오른팔이 들소 가죽을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왼팔이 그 들소를 낚아채었다. 오른팔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잡아채자 왼팔이 다시 자기 것이라면서 낚아챘다. 그러자 오른팔이 왼팔을 칼로 찌르며 쫓아버리려 했다. 왼팔은 들소가죽을 다시 낚아채려 했고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결국 왼팔이 온통 칼로 베어진 채 피가 뚝뚝 떨어지자 트릭스터는 울면서 외쳤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또 다른 날이었다. 그는 고라니의 간으로 자신의 질을 만들고 고라니의 콩팥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들어 아주 예쁜 여자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다. 그리고 여우와 합하여 임신을 하더니 어치와도, 서캐와도 합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추장의 아들과 결혼하여 네 명의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어느 날 정처없이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를 씹는 사람은 똥을 싸 것이다." 트릭스터는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보았다. 둘러보니 덩불 위에 알뿌리 하나가 보였다. 트릭스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것을 씹어도 절대로 똥을 싸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한참을 걸어가던 그는 "그렇게 많던 알뿌리는 다 어디로 간거야? 대체 그 따위 것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똥이 마려울 때 똥을 싸 뿐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귀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이게 바로 그 의미로군. 하지만 난 방귀만 좀 끼었을 뿐이야. 난 여전히 위대한 존재라구." 또 다시 방귀가 나왔다. 이번에는 좀 더 쉰 방귀였다.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때문인가?" 다시 방귀가 나왔다. 이번에는 예전 것보다 소리는 더 컸고 직장이 따끔거릴 정도였다. 그러더니 방귀의 힘에 의해 몸이 앞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는 이번에는 반항했다. "방귀가 나를 밀어 던졌지만 난 결코 똥을 싸지는 않을거라구!" 계속 똥을 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계속 방귀가 나왔고 점점 그 힘이 세져만 갔다. 이번에는 몸의 윗부분이 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손을 땅에 부딪쳤다. "그래, 계속 해보라구! 난 절대로 똥을 싸지 않을 거라구!" 이번에는 온몸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배가 땅에 정면으로 철퍼덕 부딪쳤다. 문체의 심각성을 파악한 그는 통나무를 부둥켜안았다. 그랬더니 통나무와 함께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통나무에 깔리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 했다. 이번에는 미루나무를 잡았다. 그랬더니 두 발이 하늘로 치솟았

다 떨어지는 바람에 등을 다쳤다. 그 나무는 다시 뿌리까지 뽑혀 통째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가 커다란 참나무를 잡아도 마찬가지였다. 트릭스터는 마을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집, 사람, 개, 그리고 그밖에 모든 것들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귀가 폭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다. 사람들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화가 나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고 개들도 마구 울부짖었다. 트릭스터는 이 모든 광경을 보더니 웃겨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때 뱃속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러더니 드디어 똥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던 똥이 점차 많아지더니 모든 것들을 뒤덮으면서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똥더미를 피하기 위해 나무 위로 피신했다. 똥더미는 점점 더 높이 쌓여갔고 그는 점점 더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지자 갑자기 몸이 미끄러지면서 똥더미 속으로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똥으로 온몸이 뒤덮인 채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다. (조지프 캠벨, <신의 가면1; 원시신화> 중에서)